

## 「제102회 강화군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강화군, “어린이날엔 고인돌 광장으로 모여라~!”



강화군이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10시부터 하점면 고인돌 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역사·문화 현장인 고인돌 유적지 인근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역사 인식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행사는 해병군악대의 웅장한 연주를 시작으로 표창 수여, 어린이현장 낭독, 풍등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며, 기념식 후 본격적인 체험, 놀이, 이벤

트가 펼쳐진다.

먼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무대공연으로 ▲청소년댄스팀의 화려한 퍼포먼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마술·버블벌룬 쇼 ▲예술무대 ‘산’의 대형 오브제를 이용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퍼레이드 ▲밴드 큰 그림의 동화 속 이야기를 테마로 한 동화 콘서트 등을 준비했다.

또한, ▲걱정 인형 만들기 ▲천연염색 ▲드론 VR ▲캐리커처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어린이들이 군·경·소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장갑차, 탱크, 경찰차, 소방차

등을 현장에 조성해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어린이 기차 ▲동물라이드 등을 통해 즐거움까지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년 어린이날 행사



2023년 어린이날 행사



2023년 어린이날 행사



2023년 어린이날 행사

# 강화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위한 '찾아가는 공유재산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공유재산 실무교육

강화군이 25일, 군청 진달래 홀에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공유재산 담당자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창식 강사를 초빙해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절차 ▲감사 지적 사례 등 공유재산

실무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이나 운영 기준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애로사항 및 해소 방안, 민원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여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제 재난 상황 가정해 대응능력 강화 강화군,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 실시



산사태 대비 대피훈련



산사태 대비 대피훈련

강화군이 24일, 화도면 덕포리 일원에서 마을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2024년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마을주민과 공무원, 소방서, 경찰서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름철 강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기르고자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피 훈련은 상황판단 회의, 산사태

예보 발령과 상황전파, 실제 주민 대피 및 행동 요령 습득 등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다.

훈련을 통해 주민들은 실제 대피경로 및 대피소 확인, 비상 연락망 및 주민 대피 담당자 임무 점검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실전과 동일하게 대피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례적인 잦은 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언제 어디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군민들은 대피 행동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 개별·공동주택 대상...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강화군이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개별주택 22,248호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5% 상승했으며, 오는 30일부터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원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7,859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과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 032-437-6772

# 수도권 최고의 빛공해 없는 관측명소로 각광 폐교 리모델링 강화천문과학관 내달 1일 개관

## 옛 강후초등학교 폐교 천체관측 체험시설로 재탄생



폐교 리모델링 강화천문과학관 내달 1일 개관

강화군의 옛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탄생한 강화천문과학관이 내달 1일 정식 개관한다.

강화천문과학관은 지난 2000년 폐교된 강후초등학교 건물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만든 천체관측 체험시설로 지상 3층, 연면적 1,436㎡ 규모로 조성됐다.

강화천문과학관은 30여 년 전부터 천체관측 마니아층 사이에서 관측 명소로 입소문을 탔던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마을의 강서중학교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빛 공해가 적고 너른 별관을 마주하고 있어, 밤하늘이 맑은 날

이면 망원경을 든 별 지기들이 마을에 모여들었다.

주요 관측시설로는 500mm RC 반사망원경을 갖춘 주 관측실과 6대의 다양한 굴절 및 반사망원경을 갖춘 보조관측실을 보유하고 있다.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측할 수 있으며 밤에는 달과 태양계의 행성,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과 별들이 탄생하는 성운까지 다양한 종류의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다.

관측시설 외에도 8m 원형 돔으로 조성된 천체투영관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신비로운 우주를 영상으로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상설전시실에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제작된 실감

영상과 다채로운 천문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사전 예약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강화천문과학관 홈페이지(<https://www.ganghwa.go.kr/star>)를 통해 관람료 및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강화천문과학관은 군에서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관광시설이자 교육 시설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수도권 최고의 야간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폐교 리모델링 강화천문과학관 내달 1일 개관



폐교 리모델링 강화천문과학관 내달 1일 개관



폐교 리모델링 강화천문과학관 내달 1일 개관

# 강화군, 농협 인천본부로부터 강화사랑 실천 기부금 1천만 원 기탁받아



농협 기부금 기탁식

강화군이 29일,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와 NH농협은행 인천본부로부터 강화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김재득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장과 김선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은 관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5백만 원의 특별기부금을 지정 기탁했다.

또한, 인천농협 임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5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강화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선달 농협은행 인천본부장은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강화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화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농협 인천본부의 따뜻한 나눔 정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기부금은 반드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전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강화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29일 제2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 실시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화~신도 대교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최중찬 부의장은 “강화군은 행정구역 상 인천광역시에 속하면서도 생활권 측면에서는 분리되어 있고,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실

정”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화군 최초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앞두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1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고장의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주요 사업 현장 방문

강화군의회(박승한 의장)가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검사위원들이 주요 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검사위원들은 사업비 투입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강화천문과학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업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

한승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지난 2월 강화군의회가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해 법적 지원 절차를 마련한 바가 있다”면서 “강화천문과학관이 수도권 제1의 천문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주요 사업 현장들을 확인해 내년도 강화군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주요사업 현장 방문

##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2건 연구 계획 승인 강화군의회, 의원들 연구활동 지원에 앞장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지난 24일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중찬)를 개최하고, 활동 계획을 심의 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연구 계획은 총 2건으로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최중찬) 및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오현식)이다.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강화갯벌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정책을 연구할 예정이며,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 연구회’는 강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계획했다.

각 의원 연구단체는 앞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기초자료 수집 및 전문가 자문, 토론, 군민 초청 간담회를 통해 강화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은 “두 연구단체의 활동으로 강화갯벌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 관련 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 5월 31일까지 지원...희망일 전주 월요일까지 신청하세요! 강화군, 해병대 제2사단 농번기 대민 지원에 구슬땀



강화군, 해병대 제2사단 농번기 대민 지원에 구슬땀



강화군, 해병대 제2사단 농번기 대민 지원에 구슬땀

강화군이 영농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군부대와 함께 관내 농촌 일손 돕기 대민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세농, 독거노인, 고립 지역 등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희망일 전주 월요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휴일 및 휴일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올해도 군부대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력을 적극 지원해 대민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 제2사단은 매년 농번기마다 못자리, 모내기 등 관내 농촌 일손 돕기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해에는 2,899명의 병력을 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 일손 지원을 받은 한 농민은 “4~5월이면 특히나 농작업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예전보다 일할 사람이 더 줄었다”며, “농사짓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 속, 해병대

에서 수시 작전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손을 도우려 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 제2사단의 농촌 일손 돕기 대민 지원이 관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영농철 사고 없이 농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강화군 우수상품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게! 우체국 쇼핑몰 강화군 브랜드관, 가정의 달 프로모션 진행

강화군이 내달 19일까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체국 쇼핑몰 내 강화군 브랜드관에서 전 품목 10%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가정의 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강화군 농·축·수산물 등 지역 업체에서 공급하는 우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할인 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행된다.

강화군 브랜드관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이란 면 언제든지 입점할 수 있으며, 군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특가 프로모션과 제휴 쇼핑몰 연계 판촉, 온라인 홍보 진행 등을 통해 브랜드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지인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따뜻한 5월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체국 쇼핑몰 강화군 브랜드관, 가정의 달 프로모션 진행

## 4월 29일 ~ 5월 1일,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지켜요!

강화군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1일(3일간)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마니산, 진강산, 고려산 등 강화군 주요 6개산이며, 방제면적은 1,280ha로 방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산림을 중심으로 항공방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방제 해충은 매미나방으로 4월에서 5월 유충이 부화해 나뭇잎을 갉아 먹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적기 방제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항공방제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선제적 대응 등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지켜요

# 강화군, 민원 서비스 향상 위한 공직자 친절 교육 진행

# 강화군, MZ공무원 40명 대상, 군정 발전 위한 브레인스토밍 개최



공직자 친절교육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강화군이 30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 교육은 민원 행정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친절 트렌드를 반영해 영화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관계와 갈등 ▲자존감과 회복탄력성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책임감으로, 전문가와 함께 영화 속 숨은 이야기를 나눠보며 친절과 불친절의 사례 유형을 분석·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점점 다양화·다변화되는 만큼 민원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뉴얼만 내세운 친절보다는 민원인과의 시각차를 줄이고, 자발적인 인식 변화와 친절 마인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이 지난 29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MZ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했다.

이번 브레인스토밍은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여 공무원들은 군정 발전을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제시된 아이디어는 전문 강사와 선배 공무원의 도움으로 시책으로 다듬어지며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군은 정교한 시행계획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도 지원하며, 정책으로 반영된 아이디어를 제시한 우수 분임조를 선발해 대상 3백만 원, 최우수는 2백만 원, 우수 1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MZ공무원은 변화에 민감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군은 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효능감으로 공무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을 전격 도입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일이 놀이처럼 재미있고,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필요하다”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수평적인 의견 제시가 수용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밤에도 빛나는 조명형(LED) 도로명판 102개소 설치



강화군, 밤에도 빛나는 조명형(LED) 도로명판 설치 완료



강화군, 밤에도 빛나는 조명형(LED) 도로명판 설치 완료

강화군이 지난 17일, 강화읍과 선원면 일대 26개소에 조명형(LED)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명형(LED) 도로명판은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CPTED·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주간에 태양광을 충전해 야간에 도로명판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해 별도의 전력 없이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이다.

군은 인천광역시시의 보조를 받아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강화군에 설치된 조명형 도로명판은 총 102개소이다.

이번 설치에 강화군과 강화경찰서가 협력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치 우선 지역이 선정됐다. 군은 여성과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에도 밝은 조명으로 길 찾기가 용이해져 운전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상 군민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길상면, 기관·단체(화도면 이장단)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합동 선언」



길상면



화도면 이장단, APEC 인천 개최 염원해요

길상면 기관·단체 80여명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합동 지지 선언을 길상면 주민복합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합동지지 선언에는 길상면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길상면 이장단, 새마을남·녀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노인회 등 단체장과 회원 모두가 참여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에 힘을 보탤다. 이번 합동 지지 선언으로 다른 기관·단체의 참여와 협조가 연쇄적

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더 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길상면장(김재구)은 이 자리에 모인 기관·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준비된 도시 인천, 국제회의 인프라가 있는 인천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활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우리 군민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인천이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5월~11월 운영...주문도 1박2일, 볼음도 2박3일 코스로 구성

### 강화섬에서 도도하게 살아보재! 섬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

강화군이 오는 5월~11월까지 '2024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관광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되는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관광객이 서도면(주문도, 볼음도)에서 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숙박과 식당을 이용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섬별로 특색있는 체험을 하는 섬 체류형 관광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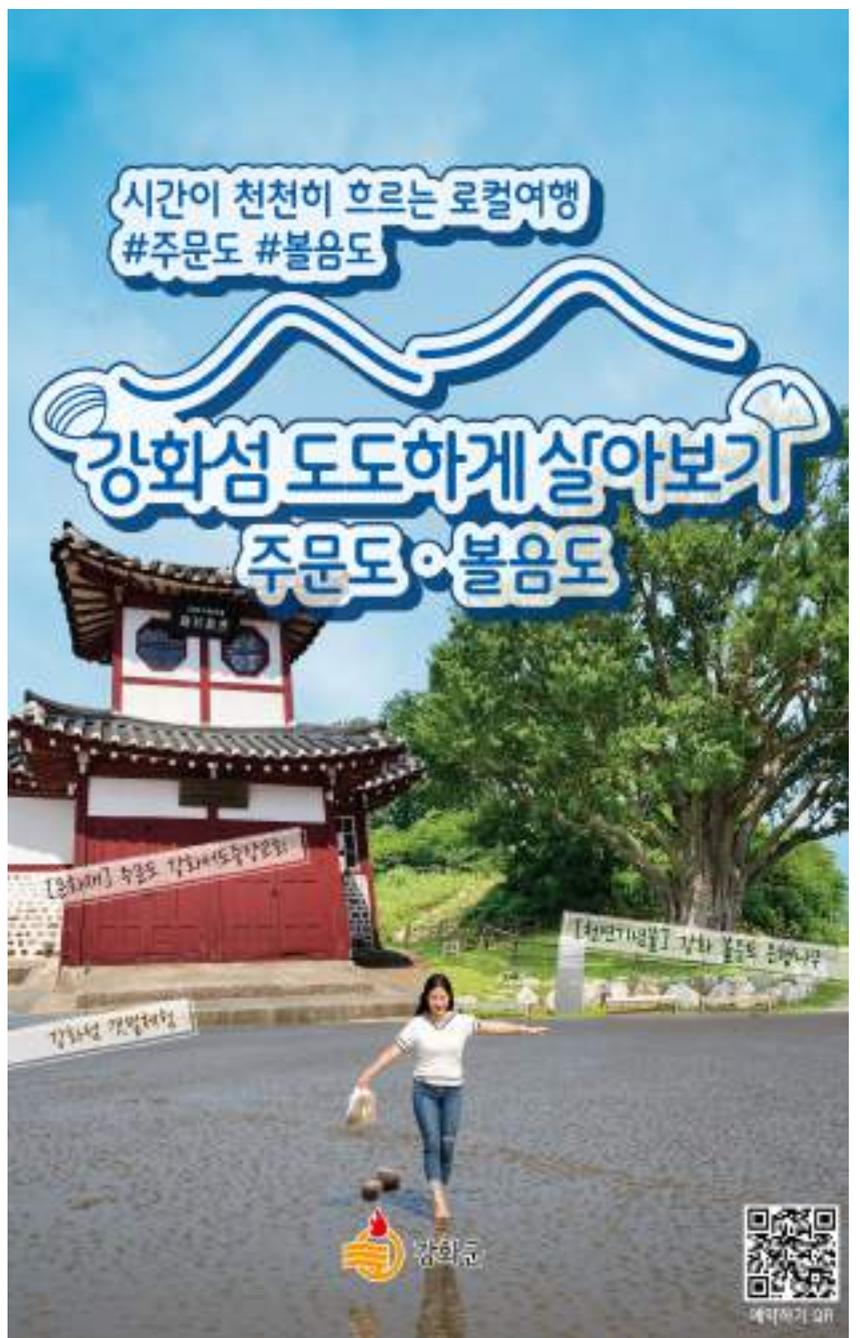
이번 관광상품은 1박2일 주문도 코스와 2박3일 볼음도 코스로 나뉘어 5월 6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강화풍물시장에서 저녁 찬거리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활 체험, 상합 개기, 마을 주민이 직접 들려주는 마을 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올해는 야간 별자리 관람, 비치코밍 거울 만들기 등 이색 체험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상품을 통해 잠시나마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섬에서 자연을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홈페이지 | <https://www.ghdodo.kr>

문의 ▶ 운영 사무처 ☎ 032) 468-5437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2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할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날로,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편견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1부는 장애인과 복지관 직원이 함께하는 기타 연주와 수어 발표, 라인댄스, 장애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색소폰 연주와 강화사랑 문화예술단의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야외부스를 운영하며 먹거리, VR 체험, 족욕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또한, 강화군보건소의 '찾아가는 건강 체크 교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나만의 드림백 만들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

하기 위해 강화군 중식당 '금문도'는 250인분의 짜장면과 탕수육, 볶음밥까지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함께한 참가자는 "작년보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더 많아져 흥미로웠고, 날씨도 맑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복지관 측에서도 앞으로 장애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행복센터, 봄맞이 특강 진행 봄빛 담은 스카프 염색하고! 봄 향기 가득한 꽃다발도 만들고!



강화군 행복센터 봄맞이 특강 봄빛 담은 스카프 염색



강화군 행복센터 봄맞이 특강 봄빛 담은 스카프 염색

강화군 행복센터(센터장 강종욱)가 오는 26일까지 봄빛과 봄 향기가 가득한 봄맞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봄빛 담은 스카프 염색'과 '봄 향기 가득 플라워 교실'로 구성돼 4월 18일~2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며, 봄의 특색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에 진행된 '봄빛 담은 스카프 염색'은 봄을 담은 색상을 선택해 손수 염색하며 나만의 스카프를 만드는 과정으로, 참가자들은 서로 완성된 스카프를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며 봄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에 진행된 '봄 향기 가득 플라워 교실'은 봄꽃을 활용해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만드는 과정으로, 참가자

들은 작약, 라넌쿨러스, 장미 등 색색의 꽃들로 자신의 개성을 담은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봄 향기 가득 플라워 교실'은 오는 26일,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참가자는 "예쁘고 향기로운 꽃과 함께하다 보니 걱정도 잊은 채 온몸으로 봄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강종욱 행복센터장은 "봄기운을 듬뿍 담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일상에서 봄의 활기와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5월 예정된 가정의 달 특강을 비롯해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서정진 기자

# 배준영 의원, 강화·옹진 세컨드홈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강화군·옹진군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 신규 취득 시 종부세·양도세 특례 적용

배준영 의원, “강화군·옹진군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6년 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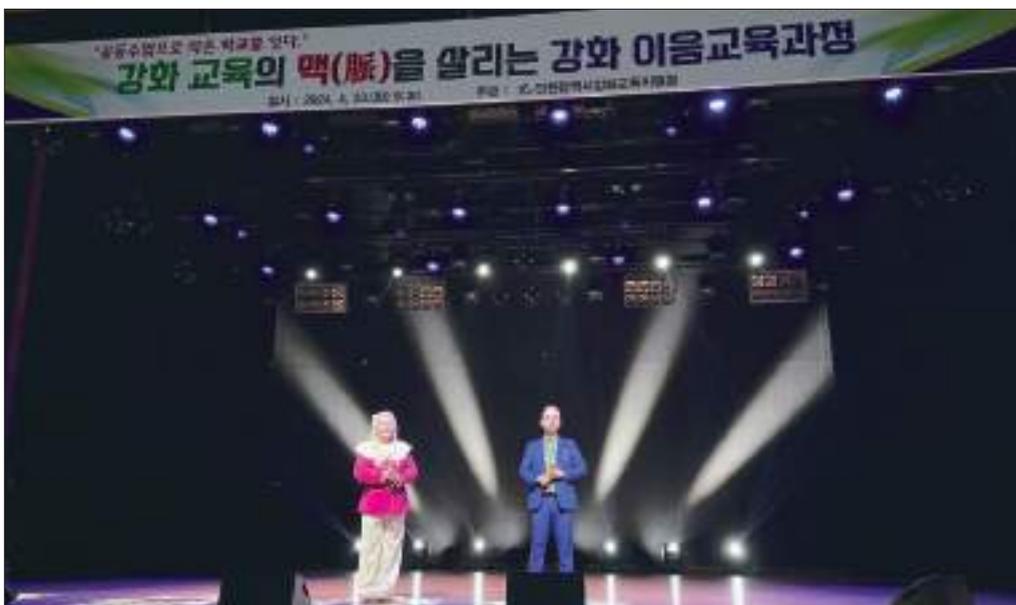
이는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배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에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제도가 적용될 당시 강화군과 옹진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세컨드홈은 이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나 요건이 매우 간소해 보다 폭 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세제개편으로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컨드홈은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 원으로 상향된다.

배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교육지원청, ‘강화 이음교육과정’ 운영



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공동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학교별 ‘따로 또 같이’ 활동의 조화를 통해 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3학년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 특히 4월 23일 ‘같이’ 활동에서는 수의사와 함께 하는 ‘동물 수호천사를 만나요.’ 특강과 더불어 동물을 주제로 한 팝페라 음악회 공연을 기획하여 강화만의 빛깔 담은 교육과정을 담아냈다.

강화 이음교육과정에 참여한 한 교사는 “강화가 발령 첫 학교인데 작은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동학년 교사가 없어서 공동 연구와 공동 실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이음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타학교의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고민하고 이렇게 관내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음악회와 수의사 강연까지 들으니, 그동안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업력 제고를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서정진 기자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강화 교육의 맥(脈)을 잇고 교육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수업 프로젝트이다. 학교 간 경계를 넘어 관내 동학년 협의체를 통해 공동 수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관내 7개교 192명의 학생

## 기고

이경수

## 진무영이 뭐예요?



강화유수부 동헌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선조 26), 선조가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명합니다.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군사 한 명 훈련 시키거나 기계 하나 수리한 것 없이, 명나라 군대만을 바라보며 적이 제 발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렸으니 불가하지 않겠는가...이렇게 세월만 보내면서 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내 생각에 따로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합당한 인원을 차출해서 장정을 뽑아 날마다 활을 익히기도 하고 포를 쏘기도 하여 모든 무예를 닦도록 하고 싶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라.”

이리하여 훈련도감이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인조 재위기에 총융청, 어영청, 수어청이, 숙종 때 금위영이 들어서면서 중앙군영 5군영 체제가 성립됩니다. 5군영 가운데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이 도성 수비를 맡아 삼군문으로 불리게 됩니다. 총융청과 수어청은 도성 외곽, 그러니까 경기지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대략 경기 동쪽 지역을 맡고 총융청은 경기 서쪽을 관할했습니다. 따라서 강화는 총융청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삼군문 가운데 하나인 어영청은 강화도에 돈대를 쌓은 군영입니다. 경기지역은 물론 충청과 황해 그리고 경상, 전라 지역에 어영청 소속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대로 번상하여 도성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어요. 각종 축조(築造) 사업에도 어영청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숙종 당시 어영청 소속 정군이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강화도 돈대 축조에 소집된 인원은 4,262명이었습니다.

이제 강화의 진무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무영은 5군영과 별도로 숙종 때 강화에 창설된 군영입니다.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이 한양을 지키고 총융청·수어청이 경기지역을 방어한다고 했지요. 진무영은 오롯이 강화를 지키는 군영입니다.

강화에 유수부를 설치하고 20년 넘게 흐른 1649년(인조 27), 강화유수 여이징이 상소했어요. 강화도 방비 대책을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부(府)는 백성이 잔폐하고 군사가 적어서 한 모퉁이도 감당할 만하지 못하는데, 수군은 통어영에 속하고 육군은 총융청에 속하여 수신(守臣, 강화유수)의 직임은 행정상의 일뿐입니다.” 《인조실록》

빛 좋은 개살구라고 호칭만 유수일 뿐, 실제로는 군사적으로 별 권한도 없다는, 푸념 섞인 상소입니다. 강화도 수군은 교동도 삼도수군통어영의 지휘를 받고 육군은 총융청의 통제 아래 있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애초 인조가 강화도호부를 강화유수부로 올린 것은 유수에게 군사적 역할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화유수에게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욕적인 유수라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 강화유수의 군사적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숙종 때 이르러 강화유수의 군사적 위상이 훅 올라갑니다. 1678년(숙종 4) 도승지 윤심이 숙종에게 청합니다. “강화유수에게 밀부(密符)를 내려주소서.” 대사헌 이원정이 말을 보탬니다. “강화에 새로운 군영을 두고 유수에게 밀부와 유서(諭書)를 내려

주심이 마땅합니다.” 숙종이 승낙하면서, 강화에 설치할 군영의 이름을 대신들이 상의해서 정하라고 지시합니다.

대신들 논의를 거쳐 강화의 군영 이름이 결정됐어요. 이름하여 진무영(鎭撫營)! 이렇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점차 규모를 키우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중앙군영을 능가하는 세를 과시하게 됩니다.

밀부? 유서?

밀부와 유서는 군사 발동권을 의미해요. 《대전통편》은 밀부의 생김새를 “원형이다. 한 면에는 제 몇부[第幾符]라고 밀부의 번호를 쓰고 다른 면에는 어압(임금 사인)을 새긴다. 가운데를 둘로 나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은 관찰사, 통제사, 수어사, 총융사, 양도(兩都)의 유수, 절도사, 방어사에게 나누어 주고, 왼쪽은 대내에 보관하되, 만약 군병을 동원하거나 기밀에 응할 일 등이 있으면 서로 맞추어 보아 간계(奸計)를 방지하고, 한결같이 받은 유서(諭書)에 따라 거행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서는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명령서입니다.

양도(兩都)의 유수?

《대전통편》은 1785년(정조 9)에 나온 새로운 법전이에요. 당시까지는 개성유수와 강화유수밖에 없었기에 ‘양도(兩都)의 유수’라고 한 것입니다.

진무영의 수장은 진무사(鎭撫使)입니다. 강화유수가 진무사를 겸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소속 병사 수가 적었어요. 외침 시 소속 군사들로만 강화도를 지키기에 버거운 겁니다. 강화유수 이선의 상소에 이러한 고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영청 군사가 새긴 명문(계룡돈대)



진무영 열무당(1876년)

“본 고을은 섬 둘레가 3백여 리이며, 돈대는 48처인데, 군병은 단지 3천 인입이다. 혹시라도 사변(事變)이 생기면 이 3천여의 군사로 3백여 리의 지역을 어떻게 경계하고 지키며, ...본부(강화유수부)에서 어떻게 곳곳마다 응접할 수 있겠습니까?” 《숙종실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병력을 강화도로 보내 상주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운영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전에 병력 차출부터가 난관입니다. 숙종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강화 인근 지역을 진무영의 외영(外營)으로 삼아 비상시에 외영의 군사들을 강화도로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무작정 외지의 군사들이 강화도에 들어오면 우왕좌왕,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A지역 군사들은 어느 돈대에서 어느 돈대까지, B지역 군사들은 또 어느 돈대에서 어느 돈대까지, 이런 식으로 지킬 구역을

미리 설정했습니다. 통제 지휘권은 강화 진무영 진무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무영은 5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종2품 진무사(겸 강화유수) 아래 정3품 진영장(鎭營將) 5명이 배속된 겁니다. 전영장은 부평부사, 좌영장은 통진부사, 중영장은 진무영 본부 중군, 우영장은 풍덕부사, 후영장은 연안부사가 맡았습니다. 세가 약해진 총융청의 반발로 이후 진무영 외영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화를 겪게 되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됩니다.

부평·통진·풍덕·연안의 수령이 비상시에 지역 병사를 이끌고 강화도로 와서 외적을 막는다는 진무영 시스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영장들을 지휘하는 진무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화유수가 진무영 진무사로서 외영장(外營長)인 부평부사, 통진부사, 풍덕부사, 연안부사에 대한 포폄

(褒貶), 즉 근무성적 평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포폄은 상·중·하, 3등급으로 행해집니다. 평가자는 대개 ‘상(上)’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형식적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물게 ‘하(下)’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를 받은 관리는 교체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잘리는 겁니다.

1678년(숙종 4)에 설치된 강화 진무영이 네 곳 외영을 관리하는 체제로 완성된 것은 1684년(숙종 10) 즈음입니다. 완성된 진무영 조직 체계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	소재	속읍	집결지	파수지
중영 (5,652명)	강화	본부		
전영 (1,713명)	부평	인천, 안산	덕진	6돈 장자평돈대~오두돈대
좌영 (1,841명)	통진	김포, 양천, 금천	갑곶	8돈 화도돈대~망해돈대
우영 (1,307명)	풍덕	고양, 교하	승천보	10돈 옥창돈대~의두돈대
후영 (1,820명)	연안	배천	인화보	10돈 불장돈대~망양돈대
별중영 (5,443명)	해미	해미, 예산, 대흥, 온양, 신창, 면천, 평택, 당진, 결성, 덕산, 아산, 서산		16돈 서남쪽 지역의 돈대들 (건평돈대~섬암돈대)

〈진무영 조직 체계〉

이렇게 해서 비상시 강화 진무영의 총 병력은 외영과 별중영을 포함해서 17,776명이 됩니다. 이 가운데 17,046명이 군병이고 730명은 장교와 출신입니다.

별중영?

표에 별중영이 슬그머니 들어갔지요? 외침이 있을 때, 모든 돈대에 외영 군사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건평돈대에서 섬암돈대까지, 강화도 서남쪽에 있는 돈대들은 빠졌어요. 서남쪽 해안은 외적의 침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라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대신 이 지역을 별중영(別中營)이라고 해서, 충청도 12고을의 군사들이 와서 지키게 했습니

다. 하지만 별중영은 얼마 안 가 진무영 체제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19세기 중엽이 되면 진무영의 위계가 더 올라갑니다. 병인양요(1866)를 겪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종2품이던 진무사의 품계를 정2품으로 올립니다. 정3품이던 진무영 중군도 종2품으로 올립니다. 신미양요(1871) 당시 광성보 전투를 이끌었던 어재연의 직책이 ‘진무중군’, 즉 진무영의 중군입니다. 그때 어재연의 품계가 종2품이었던 것이예요. 진무영의 수장이 진무사이지만, 실질적인 전투 지휘자는 중군이었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수부 동헌과 객사가 지금의 고려궁지에 있

었고, 진무영 중영은 고려궁지 아래 강화읍사무소 주변에 있었습니다. 진무영 중영 앞은 아주 넓은 연병장이었습니다. 이후 연병장 공간은 강화 오일장이 서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강화 3·1운동도 이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중간으로 동락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화 주민들이 동락천을 기준 삼아 ‘웃장판’(관청리), ‘아랫장판’(신문리), 이렇게 나눠 불렀었지요. 지금이야 뭐, 참 많이 변했죠. 오래간만에 웃장판이라는 말을 쓰고 보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웃장판 옆에 있던 중국집, 태풍관도 떠오르고요. 아, 짜장면이 팽기는 오늘입니다.



진무중군 어재연 동상(광성보 입구)

## 기고

## 강화군수를 꿈꾼다면 ‘국힘 패배’ 교훈을…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오늘 10월 강화군수를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3월 유천호 군수가 갑자기 별세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강화군수를 꿈꾸는 이들의 이름이 알게모르게 여러 명 거론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오지랖 넓은 호사가들은 출마를 꿈꾸는 자들의 인물평과 함께 장단점을 이곳저곳에 퍼다나르고 있다.

과연 어떤 인물이 강화군수가 되어야 할까. 얼마전 끝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의 힘’을 다시 보여준 강화군과는 달리 전국에서는 보수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윤정권의 불통과 오만 독선을 국민이 표로 심판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불통 이미지를 벗고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억지추향격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현재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은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현 정권을 몰아칠 것이다. 윤정권은 최악의 경우 앞으로 남은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정권이 될 지도 모른다.

전국적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강화군민의 표심과 달리 국민의힘은 왜 참패했을까. 실패가 성공을 알려주는 또 다른 교훈이듯 선거 참패 이유를 알고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는다면 다음

선거나 지방 선거 등에서 이길 수 있다. 강화군수를 꿈꾸는 후보자들이라면 반드시 국민의힘 패배가 주는 교훈에서 많은 점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당선되고 또 당선되고 나서도 강화군민을 위한 군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국민의힘 참패 이유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대서특필해 모두가 잘 안다. 바로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 불통이다.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통행은 국민과의 불통을 가져와 민심이 크게 분노했다. 이번 총선은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특히 호주대사 임명과 의료인력 증원 문제 등은 선거를 앞두고도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무리수였다. 국민을 위한다는 민생토론회가 20회 넘게 열렸지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안내였다.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대과 875원’ 발언에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선거 참패후 윤대통령은 뒤늦게 민심을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레드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본래 레드팀이란 조직내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 민생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감없이 쓴소리 곧은소리를 전하는 취지다. 권력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거나 현안을 제대로 알리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래도 누군가는 저자거리의 민심을 바로 전달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때도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안해 장기집권할 것같았던 정권을 내놓았고 현재 윤석열 정권도 불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은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조그만한 시골 지역이다. 시골이기에 군수의 역할과 처신이 더욱 중요하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강화군에서는 강화군수가 대통령과 거의 맞먹는 자리다. 그만큼 힘이 막강하다는 뜻이다. 강화군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에 근무연까지 하면 모든 게 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너나없이 친인척이요 이웃이요 학교나 직장 선후배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줄 때는 좋게 작용하는 데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에는 방해물이다. 군수의 막강한 힘이 지나치게 연을 따라가면 군정은 꼬이게 되고 공무원 사회는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 피해는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부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를 교훈삼아 최대한 쓴소리도 듣고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인물이 강화군수로 당선되었으면 한다. 쓴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리더는 이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대 리더의 또 다른 자질은 솔선수범과 공정한 인사다. 무턱대고 권위와 직책으로 소리만 지르고 일을 강요하는 시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10월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군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함께 일할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물이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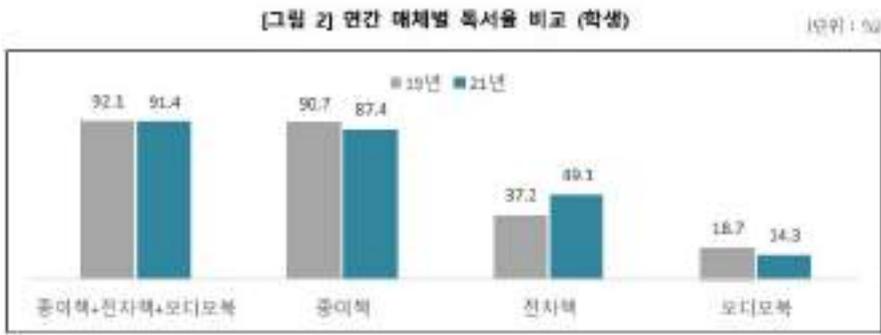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리더

# 대한민국 성인의 52.5%는 일 년간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



내가면 황청리 멘토의힘 대안교육센터 지도교수 유담

오랫동안 인간은 종이라는 물질을 묶어 펴낸 책을 통해 지혜와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독서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가통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간(조사기간 2020.9~2021.8) 실시한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통계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기준 종이책 연간 독서율이 1994년 87%에서 2019년 52.1%, 2021년에는 40.7%까지 급감했습니다. 소위 E북이라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종이책을 보완하지만 이런 책까지 포함하더라도 종합 독서율이 47.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52.5%는 일 년간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일자: 2022.09.26.

대학에서는 일학년 과정에서 '교양필수'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쳐 왔던 독서토론 과목도 2학점짜리 교양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과목은 자신들의 전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 교육경험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교양과목을 왜 수강해야 하는지 묻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었기에 질문이 없을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궁금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1학년 학기 초에는 반드시 교양과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교양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합니다. 즉 교양과목은 학문 영역을 넓혀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윤리적 사고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양과목에서는 윤리와 가치관에 대한 고찰이 자주 다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윤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교양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로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독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

람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은 별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독서 생활이 중요한지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꼭 집어서 대답해 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교육철학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하고 둘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셋째, 지식보다 지혜를 지혜보다 지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지혜의 선현들이 해 놓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판단력을 갖추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내용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한다면 재미를 위하여 읽는 책, 지식과 정보를 읽는 책, 지혜와 판단을 얻기 위해 읽는 책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책의 분류에 따른다면 지혜와 판단을 얻는 책이 인문학 서적이고 교양서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성인들이 일 년에 52.5%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관 상실과 그릇된 판단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기에 성인의 독서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 관련 책은 직업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혜와 가치 판단을 얻는 책을 가까이하기란 어려서 습관을 들이기 전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의 52.5%가 책을 일 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강화의 다음 세대를 위해 독서운동을 펼치고자 본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어려서 독서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책을 읽게 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강화의 아이들"이라는 독서캠페인은 우선 그 목적을 학습역량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가 어떻게 학습역량을 높여주는지 그 실질적인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주 필자는 선행리를 지나다가 "\*\*\*교회 목사님의 자녀 \*\*\*의 서울대 입학 축하합니다."라는 플랑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 년간 강화 아이들의 학습역량을 높이는 것을 위해 나름 최선의 봉사활동을 해왔기에 저에게는 눈에 확 띄이는 문구였습니다. 곧바로 교회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를 시도한 끝에 다음 날 서울대 합격생의 아버님인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자제분을 서울대학에 보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독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실시하는 있는 것이 매일 성경 5장 읽기와 인문학 서적 읽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2023년 4월에 제천에서 강화로 목회지를 옮겼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는 작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셋인데 학원에 보낼 형편이 안되어 그저 집에서 성경 읽기와 인문학 서적 읽기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 읽기는 훈련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으로 훈련되었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최고의 서울대학생 합격률을 자랑하는 용인외고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첫째가 올해에 서울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었고 나머지 두 자녀도 형들을 따라 서울대학 입학할 꿈꾸며 용인외고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강화에서 독서운동이 펼쳐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의 훈련과 그로 인해 학습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책 읽는 강화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일을 성취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인의 절반이 일 년에 한 권의 책도 안 읽는다는 통계를 보면서 강화에서는 일 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성인들이 100%가 되기까지 독서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와 어른들의 뒤통수를 보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삶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그렇기에 강화의 어른들이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강화의 미래를 위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 “제3회 강화군체육회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성료

## 올해로 3회째 맞은 축구 꿈나무들의 동기부여와 실력 향상의 장 총 72개팀 선수단 및 가족 등 2,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강화군 체육회는 지난 14일 강화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제3회 강화군체육회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이하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체육회가 주관하고 강화군축구협회가 주최한 이번대회는 초등학교 U-8(1학년)부터 U-13(6학년)까지 육성반 48개팀, 엘리트반 24개팀 총 72개팀 선수단과 가족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띤 경쟁을 펼쳐졌다.

경기 결과에 따라 부문별 우승, 준우승 및 공동3위 팀에게는 트로피,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입상 트로피를 제공하여 축구 꿈나무들에게 동기부여와 실력 향상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박영광 강화군체육회장은 “올해로 3회 맞아 참가 규모가 커진만큼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환경속

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회를 개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풍물시장 등 강화군의 특산물과 음식점, 숙박 등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인천강화경찰서, 길상면사무소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 개최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26일 길상면사무소(면장 김재구)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안정책 설명회에는 길상면 이장단, 농촌지도자, 노인회, 부녀회,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 80여명과, 경찰서 각 과(계·팀)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는 마을 주요회의 시 경찰서장 및 각 과(계·팀)장이 직접 찾아가 관내 범죄치안현황 분석 및 보이스포싱 등 각종 범죄예방 홍보를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민 보호

를 위한 강화서 자체 추진 시책이다.

2023년 금융기관대상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개최를 통해 평상시 보이스포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던 은행 직원이 결혼자금으로 준비해둔 8,200만원을 보이스포싱범에게 속아 인출하려던 피해자를 보고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강화서에서는 2024년도에도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각종 범죄예방 홍보와 주민들의 정책제언 및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소관 과(계·팀)장이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는 피드백을 통한 주민밀착형 치안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이번 치안

설명회의 목적은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단, 노인회, 부녀회, 농촌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 및 공동체 치안 협력체제를 구축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있다”

며 “앞으로도 강화경찰은 찾아가는 치안정책을 적극 펼쳐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 강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했다.

- 서정진 기자



치안설명회

# 오는 5월 1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유사 수준으로 완화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됩니다!

강화군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확진자 격리 기간은 5일 권고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

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고,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판단에 따르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서정진 기자

구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b>1 방역조치</b>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편의 전환		
방역조치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요양병원 시설 흡수권 선택권 부여	▶ 권고 전환 ▶ 코로나19 주요 유행성 동절기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동고 ▶ 한 번에 1회 이상 착용 의무 (의무는 해제)
<b>2 의료지원</b>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유과·백신 지원은 유지		
유증상자	• 의료기관에 입원 • 의료기관 내 소독방역 • 입원(내원) 시 • 입원(내원) 시	▶ PCR 검사 ▶ PCR 검사 ▶ PCR 검사 ▶ PCR 검사
무증상자	• 의료기관 내 중증 응급 병문안 • 요양병원 입소 • 요양병원 입소 • 요양병원 입소	▶ PCR 검사 ▶ PCR 검사 ▶ PCR 검사 ▶ PCR 검사
입원취급비	• 건강보험 적용 시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면제 지원	▶ 1~2만원 내 본인부담 ▶ 3~4만원 내 본인부담 ▶ 5~6만원 내 본인부담 ▶ 7~8만원 내 본인부담
치료비	• 무상 지원	▶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
백신접종	• 전 국민 예방접종	▶ 유지
<b>3 검사·대응</b> 유행성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표본감시	• 코로나19 발생지 감시	▶ 유행성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 동수준(비대면) 및 확대(방역)	▶ 동수준(비대면) 유지

## 강화군, 석모도 휴양림 산책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데크로드 조성 위한 경관조명 설치 완료



강화군, 석모도 휴양림 산책로 야간 경관조명으로 빛나



강화군, 석모도 휴양림 산책로 야간 경관조명으로 빛나

강화군이 지난 24일,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휴양림(수목원) 방문객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석모도 휴양림 산책로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

경관조명이 설치된 곳은 석모도 휴양림 1~2차를 연결하는 길이 0.6km, 폭 2.2m 규모의 무장애 데크로드로,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서해 바닷가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전망 포토존 등의 휴식처도 마련돼 즐길 수 있다.

그동안 이곳 무장애 데크로드에는 야간조명이 없어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방문객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강화군이 올해 4월 군비 4천만을 투입해 총 185개의 친환경 LED 조명등을 설치하며 더욱 안전하고 분위기 있는 데크로드를 조성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강화군, 석모도 휴양림 산책로 야간 경관조명으로 빛나

可  
景  
가경



**1주년 감사기념 한우 가격인하!!**

**1++ 한우(100g) 23,400원**

가정의 달 <가경>에서 한우를 가격은 저렴하게  
맛은 고품격으로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가족외식·직장회식·주부모임은 가경에서!**



**한우구이 · 돼지갈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76-4 ☎ **032-937-9800**

**가정의 달 단체 | 단체룸 완비 | 홀 104석 | 연회석 48석 | 주차 150대 가능**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http://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